



진리
평화
창조

외대학보

창간 1955년 4월 11일 1958년 3월 27일 제3종 우편물(가)급인가 등록 1960년 7월 1일 등록번호 제 다523호

발행인	박필수
편집인	김지재
편집장	강병준
외대신문사 (☎ 962-7128, 965-7001)	
외대학보 (☎ 965-7048, 965-7001)	
130-791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1	
449-791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황산리	
인쇄인	김영로

제 532 호 <주간> THE OE DAE HAGBO PUBLISHED BY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1990년 1월 1일 (월요일)



단단히 묶고

자! 이제 승리의 출발선에 섭시다.

—외대학보 기자일동—

윤봉선 작

사설

경오년 회향한 새해를 맞이하며
—승리하는 90년대 향해 힘찬 거보를 내딛자—

묵은 해가 저물고 20세기의 마지막 경기기가 21세기로의 일대 도약을 위한 준비기간을 90년대의 첫해를 맞이하였다. 한해를 정리한다는 말이 오히려 무색하게 들리는 작금 새해를 맞는 우리의 감회는 신년에 대한 벅찬 기쁨보다는 지난해에 이루지 못한 과제들에 대한 아쉬움과 앞날에 대한 실망으로 다가오는 것이 사실이다.

이제는 이제 역사의 한페이지로 기록될 80년대를 보내며 승리하는 90년대를 만들어야한다는 당위적 태도를 우리들이 아니라 주인공인 역사에 대한 확신과 승리에 대한 낙관적 태도를 갖는다.

우리의 현실은 역사가 축적된 산물이며 오늘의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역사적 맥락에서 우리의 위치를 정확하게 가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1980년대는 80년대를 위한 전진을 거듭해 나간 시기였다. 80년대는 미국의 분열을 재확인하며 반미의 무장투쟁이 한반도에 열풍처럼 불붙었을 때 주미의 큰 획을 그었다. 아직도 우리의 기억에 생생한 87년 6월 항쟁과 7·8월 노동자대투쟁은 각계각층에서 일어난 민주적 계몽을 되찾기 위한 계기가 되었다. 젊은이, 학생들 선진적 지식인 운동에서 대중운동으로 전환한 기점이었다. 또한 88년 남북학술회담으로 시작된 통일운동은 조국통일운동대중화의 서막을 열었으며 이후 통일운동은 단순한 구호나 감성차원의 공명만이 아닌 우리 민족의 앞날을 좌우할 핵심적 과제로 떠오르게 되었다.

오는 90년대에 이르러 보다 세계적으로나 국내적으로 많은 변화가 오리라고 예상된다. 역사는 항상 끊임없이 변화·발전하며 어느 시대도 변하지 않는 시대인 것처럼 우리가 맞이하는 90년대야말로 국내적으로도 전 세계적인 발전을 이룩하는 역사적인 변혁기에 해당한다. 그러한 변화의 쐬은 이미 80년대부터 충분히 보였고 지금의 변화의 추세를 짐작할 수 있다.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역사를 이끄는 주체들의 실천적 의지와 미래의 역사에 대한 확신일 것이다.

한국전쟁 40주년, 4월혁명 30주년, 노동운동의 분기점 이었던 전일대위사 선전20주년, 광주민중항쟁 10주년이 되는 1990년.

80년대가 위대한 전진의 시기였다면 90년대는 열방스런 승리의 시기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바로 오는 1990년 1월 1일부터 힘찬 거보를 내딛기 시작하자.

외대의 창 의 력 을 하나 로



박필수 총장 신년사

서 학부의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학의 모든 구성원은 일련의 학사일정을 대외적이 마무리 하였으니 참으로 다양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지도와 학사운영에 기여에 동참하신 교수님과 교직원, 그리고 총장의 격려와 감사를 표합니다.

역사발전의 주체로 서자

사과 치하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모든 위대한 열의와 노력을 하나로 뭉쳐 창립자의 대열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건투를 다시 기원합니다.

시대를 밝히는 중흥 외대를

이수경 이사장 신년사



경오년 새해를 맞아, 위대한 여러분들이 더욱 건강하시고 가정에서 평화와 행복이 깃드는 가운데 크나큰 소망을 성취하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일년은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 글자 그대로 격동과 변화의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회의 어수선했던 분위기와 대학내의 복잡한 상황

발전을 위한 끊임없는 전진

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학문연구와 지식향상에 힘쓰고 변화의 과정에 동참하여 주신 의대생 여러분께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90년도 외대를 전망합니다

양 캠퍼스 총학생회장의 신년대담

이제 새해를 시작된 90년대는 80년대의 성숙된 사회인식과 역사적경험을 바탕으로 학원자주투쟁 등의 재반사입들을 이루어나기 위한 연대입니다. 이에 본보에서는 올해 새해를 총학생회장이 이끌고 갈 양 캠퍼스 총학생회장들에게 올해의 각 분야별 사업 계획과 전망에 대하여 서로간의 대담을 통하여 독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올해를 전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도에서 이 글을 기획하였습니다. (편집자)

대 제11대 총학생회장 해경애할 1학년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은 다른 제반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있어 먼저 이루어야 할 선행 조건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등록금 인상에 관하여는 등록금 조정위원회가 구성되어 89년도 등록금 고지서와 발부되어 사실 상 동결된 상태이고 나머지 재원 계속적인 협의에서 해결되도록 하였습니다.

80년대 임수경장과 문인환총장의 방북등으로 성숙된 통일 의지를 바탕으로 90년대는 꼭 일을 이루어야 한다고 보고 우리학교가 평양의대와 학술교류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냐 하 물에 대해 임대표는 구술교류, 전담교류는 이루어야 할 통일화 루라도 알았다는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김기적-문인은 우리겨레의 비극이며 통일은 7천만 겨레의 숙원이자 현실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앞으로

▲기차-마르틴 중에도 시간을 내주시어 감사합니다. 먼저 요충 등록금인상문제가 크게 부각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하여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이완현원 90년도 학원자주투

쟁(이하 학자투)의 전망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기적-학자투는 과거 단순한 복지나 경제문제 차원의 것들이 점차 커지면서 시작되었다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학자투를 하도록 있어 학생회

의 몇몇 간부들만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동참한 가운데 사업이 수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등록금 인상세에 대하여는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타당하다고 하신 말씀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못하다고 할 경우에는 통

경시여 나아가고자 합니다. 역으로 90년대 학자투는 과거 지향점을 극복하고 학대중심의 이해와 요구를 폭넓게 수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이러한 것들을 하는데 있어서는 학 대 대중들과의 화합과 단결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관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영록-학자투는 그것의 성과로 총학생회의 신임을 얻고자 하시는 안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자투를 하는데 있어 현재로써는 아주 작고 미미한 사업이라 할지라도 장기적으로는 커다란 사업이 될 수 있는 그러면서도 5천 원의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활동을 해나갈 것입니다.

현재 학교측에서는 학생들의 사업의 주체가 아닌 조력자로 보고 있고 이러한 것들은 90년

▲이영록-이시간 수많은 일련에서는 저마다의 영역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을 것입니다. 그들이 흘리는 한방울 한방울의 땀방울은 단지 자기자신에 국한되지 않은 좀 더 많은 인간들을 위한 땀방울입니다.

영웅 시대

▲이영록-영웅시대는 영웅을 혼자서는 존재할 수 없다. 나팔대장이 뛰어난 영웅이었던다고는 하지만 그 당시 민중들의 현실개혁 의지와 피흘리는 투쟁이 뒷받침되지 않았다면 그 한 개인으로써는 삶을 마쳐야 했을 것이다. 우리는 인류의 역사발전 과정에서 변화의 주체가 언제나 한 개인이 아닌 대다수의 민중이었다는 사실을 역사의 정면으로 알고 있다.

▲이영록-영웅시대는 영웅을 혼자서는 존재할 수 없다. 나팔대장이 뛰어난 영웅이었던다고는 하지만 그 당시 민중들의 현실개혁 의지와 피흘리는 투쟁이 뒷받침되지 않았다면 그 한 개인으로써는 삶을 마쳐야 했을 것이다. 우리는 인류의 역사발전 과정에서 변화의 주체가 언제나 한 개인이 아닌 대다수의 민중이었다는 사실을 역사의 정면으로 알고 있다.

▲이영록-영웅시대는 영웅을 혼자서는 존재할 수 없다. 나팔대장이 뛰어난 영웅이었던다고는 하지만 그 당시 민중들의 현실개혁 의지와 피흘리는 투쟁이 뒷받침되지 않았다면 그 한 개인으로써는 삶을 마쳐야 했을 것이다. 우리는 인류의 역사발전 과정에서 변화의 주체가 언제나 한 개인이 아닌 대다수의 민중이었다는 사실을 역사의 정면으로 알고 있다.

▲이영록-영웅시대는 영웅을 혼자서는 존재할 수 없다. 나팔대장이 뛰어난 영웅이었던다고는 하지만 그 당시 민중들의 현실개혁 의지와 피흘리는 투쟁이 뒷받침되지 않았다면 그 한 개인으로써는 삶을 마쳐야 했을 것이다. 우리는 인류의 역사발전 과정에서 변화의 주체가 언제나 한 개인이 아닌 대다수의 민중이었다는 사실을 역사의 정면으로 알고 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되어 오는데 이르러까지 지구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위치를 찾기 위해 나팔대장의 삶을 영위했다. 사라져 갔다. 그중 몇몇 사람들은 빛을, 몇몇은 이 지반 오늘날까지 영웅이란 칭호를 받으며 후세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

▲우리들은 자라오면서 주위로부터 많은 질문들을 받고 거기에 대해 답해야 했다. 그 질문들에는 다음과 같은 물음이 있었을 것이다. 「당신의 영웅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누구를 가장 존경합니까? 당신은 왜 그 사람을 영웅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들은 이와같은 질문을 접했음에도 우리들이 흔히 영웅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며 때때로 역사의 한페이지를 인물화하기가 생각의 경 당을 내세웠을 것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듯이 인간은 사회화되어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재가치를 상실하게 된다. 즉 개인이 아닌 타인과의 만남과 그들과의 관계속에서 비로소 개인의 자각을

다르게 해서 인류역사가 피보한다고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수많은 노동자의 땀방울이 없었던 인류의 역사는 발전하지 못했을 것이 분명하다. 진정한 영웅은 영웅자신의 위대함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있는 민중들로부터 찬송을 받게 해야 할 것이다. (주)

▲이영록-영웅시대는 영웅을 혼자서는 존재할 수 없다. 나팔대장이 뛰어난 영웅이었던다고는 하지만 그 당시 민중들의 현실개혁 의지와 피흘리는 투쟁이 뒷받침되지 않았다면 그 한 개인으로써는 삶을 마쳐야 했을 것이다. 우리는 인류의 역사발전 과정에서 변화의 주체가 언제나 한 개인이 아닌 대다수의 민중이었다는 사실을 역사의 정면으로 알고 있다.

▲이영록-영웅시대는 영웅을 혼자서는 존재할 수 없다. 나팔대장이 뛰어난 영웅이었던다고는 하지만 그 당시 민중들의 현실개혁 의지와 피흘리는 투쟁이 뒷받침되지 않았다면 그 한 개인으로써는 삶을 마쳐야 했을 것이다. 우리는 인류의 역사발전 과정에서 변화의 주체가 언제나 한 개인이 아닌 대다수의 민중이었다는 사실을 역사의 정면으로 알고 있다.

▲이영록-영웅시대는 영웅을 혼자서는 존재할 수 없다. 나팔대장이 뛰어난 영웅이었던다고는 하지만 그 당시 민중들의 현실개혁 의지와 피흘리는 투쟁이 뒷받침되지 않았다면 그 한 개인으로써는 삶을 마쳐야 했을 것이다. 우리는 인류의 역사발전 과정에서 변화의 주체가 언제나 한 개인이 아닌 대다수의 민중이었다는 사실을 역사의 정면으로 알고 있다.

▲이영록-영웅시대는 영웅을 혼자서는 존재할 수 없다. 나팔대장이 뛰어난 영웅이었던다고는 하지만 그 당시 민중들의 현실개혁 의지와 피흘리는 투쟁이 뒷받침되지 않았다면 그 한 개인으로써는 삶을 마쳐야 했을 것이다. 우리는 인류의 역사발전 과정에서 변화의 주체가 언제나 한 개인이 아닌 대다수의 민중이었다는 사실을 역사의 정면으로 알고 있다.

▲이영록-영웅시대는 영웅을 혼자서는 존재할 수 없다. 나팔대장이 뛰어난 영웅이었던다고는 하지만 그 당시 민중들의 현실개혁 의지와 피흘리는 투쟁이 뒷받침되지 않았다면 그 한 개인으로써는 삶을 마쳐야 했을 것이다. 우리는 인류의 역사발전 과정에서 변화의 주체가 언제나 한 개인이 아닌 대다수의 민중이었다는 사실을 역사의 정면으로 알고 있다.

자주 학교를 간다! 내일의 약속이 타오른다 우리의 햇불로 타오른다 무기이다 걸으며 보기에 우리가 깨졌지만 천만 노동자의 눈동자는 꺼지지 않는 햇불로 타오른다

우리와 어깨 건 천만 농민, 민주시민의 투쟁은 더욱 단단해진다 햇불을 들자 이밤을 지나 새벽이 올 때까지 저 하늘 높이 높이 햇불을 들자

(시「햇불을 들자」중에서)

전국노동조합협의회 성공적인 결성을 지원합니다

외 대 학 보

신년 특집

한국의 대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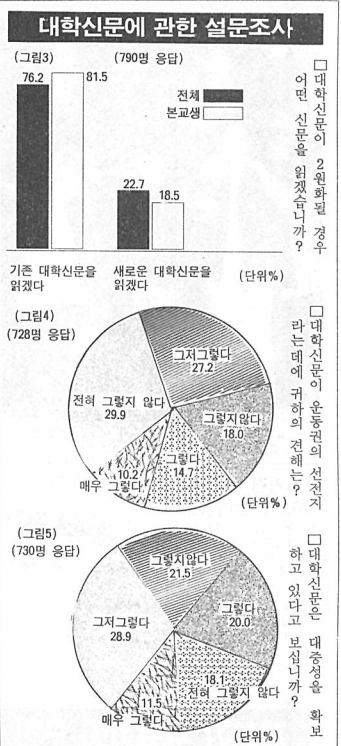
신년특집으로 본보에서 게재해 온 「전국 대학생의 의식조사」는 각 대학신문사 연합인 「전국 대학신문사기자 연합회」가 지난 89년 11·12월에 걸쳐 무작위 추출된 8개 대학교 학생 8백 4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이다.

○질의분야: 1. 총학생회 2. 집회와 시위 3. 대학신문 4. 통일관 5. 교육문제 6. 한·미관계

○대상학교: 광운대, 동아대, 부산대, 부산여대, 부산의국여대, 한국의국여대, 한신대, 한양대(가나다순)

○자료분석기관: 연세대학교 동아리세베이(Survey)

○자료분석방법: 컴퓨터기종 Cyber, 프로그램 SPSS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것이다.

첫째, 우리들의 자치조직, 학생회—그 대표성과 신뢰도에 대하여

80년대 들어서 급성장한 학생운동은 사실상 학생회를 주축으로 모든 활동이 이루어져 왔을 수 있다. 한때 80년대 말기에 들어서며 학생회는 초기의 시금였던 조직화와 그 위상 강화와 사업의 범위를 지나 이제는 얼마나 학생들에게 호응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통해 평가를 받고 신뢰성을 확보하느냐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는 학생운동이 단순히 추상적이고 관념적이었던 단계와 비교하고, 구체적인 실체적인 학생대중들의 의사와 평가를 토대로 움직여 나가고 있다는 매우 긍정적인 발전이라 볼 수 있다.

실제로 오는 90년대 대학가의 판도를 가늠할 지남해발 각 대학 총학생회장선거에서 보였던 학생들의 뜨거운 호응과 주변의 관심은 그 좋은 예이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던진 학생회에 관한 질문의 결과는 매우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학생회의 대표성에 저지는 적은 반면 「총학생회의 모든 방침에 동의한다」하는 질문에는 「전적으로 지지한다」가 3.4%, 「대부분 지지한다」가 59.2%, 「거의 지지하지 않는다」가 29.1%, 「전혀 지지하지 않는다」가 1.4%, 「관심없다」는 6.9%의 결과를 보여 대표성 인식과 각종 사업지지에 있어서는 다소 상반된 의사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이 학생회의 사업이나 방침에는 큰 관심이 있는 반면 최근 학생회의 자성으로 대두되었던 대중과 사업과의 격리현상이 가시적으로 나타난 결과라 볼 수 있다.

따라서 90년도의 대다수 학생회가 채택하고 있는 학내대중의 생활속에서부터 사업을 고안해내고 평가를 받고자 하는 원칙이 관철될 때, 그간 학생과 학생회의 다소 소원했던 관계는 충분히 극복되고 전경으로 학내대중의 지지를 토대로 학생회사업을 원활히 해낼 수 있는 결과를 낼 수리라 본다.

앞날을 본교생들의 설문결과를 별도로 살펴보면 대표성인식에서 「60~80%정도 대표한다」가 24.2%, 「총학생회 방침에 모두 동의한다」가 67.5%로서 전체의 결과인 20.6%, 62.6%와 각각 비교해 타대학에 비해 학생회의 신뢰도가 두터운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내 집회와 시위—참여도와 이를 보는 시각에 대하여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특히 그 시각적이지 않게 드러나고 있는 학내 집회와 시위에 관한 설문

학생회·집회시위·대학신문·통일·전교조·한

이 없어서, 30.4%, 「학생은 공부만 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때문」을 10.3%, 기타 10.9%의

결과를 보여, 89년에는 매년 학원단위의 선전으로 대



학생회의 대표성에 대한 지지도에 비해 학생회 사업에 대한 관심도는 큰것으로 나타나

순으로 들었다. 이와는 별도로 집회참여에 대한 남녀별 결과를 보면 남학생은 55.7%, 여학생은 66.5%가 「집회」 시위에 참가한다. 이는 결과물 나타내 의외로 응답자중 여학생의 집회에 참여도 차이가 더욱 높게 나타났다.

학내 학생자치인원활동에 대한 전면적 탄압이 연이었던 해였

또한 학내별 결과를 보면 「학생회의」에 대해 82·83학번의 60%·33.3%, 84·85학번의 경우 57.2%·58.5%, 그리고 86·87학번의 경우 42.3%·64.9%, 88·89학번의 경우 64.6%·61.8%로 각각 나타나 기존 집회·시위참석은 주로 저학년이라는 경향을 벗어나 학년이 올라갈수록 무관하게 비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대학신문은 과연 일 부사상에 물론 선전매체인가하는 문제와 함께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관심을 일으켰다. 이에 대해 대학신문의 가장 큰 주체로 위치지우려는 학생들이 평가한 대학신문에 관한 설문은 현시점에서 대학신문의 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계인이 될 수 있다.

한편 「최근 학생운동이 과격해지고 있다는 일부의 의견에 대해 귀하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학생운동은 비폭력·평화적이어야 하므로 자제해야 한다」 39.6%, 「구조적 폭력에 대한 정당한 방위수단으로 당연하다」 36.4%,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10.3%, 「과잉·허위 보도에 의해 왜곡된 것일뿐 결코 과격하지 않다」 13.7%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생내부에서도 학생운동의 주된 이유는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71.8%가 「현사회의 모순의 해결을 위해서」를 주된 원인으로 꼽았고, 다음으로는 「단순한 호기심」 13.0%, 「선배나 동료들 따라서」가 6.2%, 기타가 8.9%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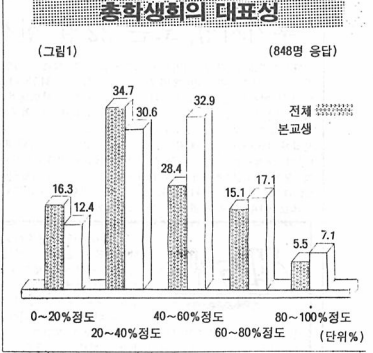
우선 「학내신문을 받아보면 주로 무슨 기사부터 읽는가?」라는 질문(표1 참조)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그 순위가 주로 보도기사, 칼럼, 소설이나 수필, 가설문, 논문 순으로 나타나 대부분이 대학신문을 학내정보를 얻기위한 매체로서, 그리고 가벼운 활판이나 가설문지적인 기사를 그리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대학신문의 참 소리와, 대학신문—그 위치와 대중성에 대하여

80년대에 들어서 더욱 노

이와함께 대학신문은 과연 일 부사상에 물론 선전매체인가하는 문제와 함께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관심을 일으켰다. 이에 대해 대학신문의 가장 큰 주체로 위치지우려는 학생들이 평가한 대학신문에 관한 설문은 현시점에서 대학신문의 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계인이 될 수 있다.

이와함께 대학신문은 과연 일 부사상에 물론 선전매체인가하는 문제와 함께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관심을 일으켰다. 이에 대해 대학신문의 가장 큰 주체로 위치지우려는 학생들이 평가한 대학신문에 관한 설문은 현시점에서 대학신문의 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계인이 될 수 있다.



여진다. 한편 지난해 문교부가 대학신문을 의무적으로 단합하기 위해 발표한 조치인 대학신문 2원화 제도에 대한 견해로는 68.3% (전체 8백33명중)가 명백한 반대 「두개의 대학신문으로 2원화될 경우 어느것을 읽겠는가?」라는 질문에는 역시 다수인 76.2%가 기존의 것을 읽겠다는 대답으로 여전히 현 대학신문에 대한 학

시작하며, 조사의 목적과 취지에 대하여

한반도에 있어서 지난 80년대는 민족이 역사적 주체로 등장하는 대전환의 기간이었다. 그런만큼 작게는 대중의식의 놀라운 변화와 발전이 있었고 그속에서 신진적 활동의 일익을 담당한 청년학생들의 의식변화는 특히 눈부신 것이었다 평가할 수 있다.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회」(이하 전대신문)에서는 90년대를 맞이하는 문턱에서 대학신문에게 주어진 민족자주권은 수호해줄 책임과 대학신문의 사회적 사명과 이념의 견해를 알아보는 설문조사작업을 벌였다.

설문의 분야는 크게 현 대학 학생회에 대한 질문과 집회·시위에 관한 질문, 그리고 최근 들어 공권력의 대(對)학원탄압에 관한 질문, 그리고 최근 들어 학생들의 의사와 평가를 토대로 움직여 나가고 있다는 매우 긍정적인 발전이라 볼 수 있다.

통일안에 있어서는 「서로 체제를 인정하는 방안」에 압도적 지지율보여

먼저 지난 89년 2학기부터 문교부에서 학생회 탄압의 한 방법으로 학생회의 물적·대인적·재정적 상실을 노린 학생회비 분리수납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 8백35명중 81.0%가 분리수납이후에도 변화없이 학생회비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교 학생의 경우 「납부하지 않았다」는 8.3%에 그칠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었다.

대학신문이 운동권의 선전지라는 데에 귀하의 견해는?

이와함께 대학신문은 과연 일 부사상에 물론 선전매체인가하는 문제와 함께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관심을 일으켰다. 이에 대해 대학신문의 가장 큰 주체로 위치지우려는 학생들이 평가한 대학신문에 관한 설문은 현시점에서 대학신문의 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계인이 될 수 있다.

외국어교육, 최고의 자부심을 펼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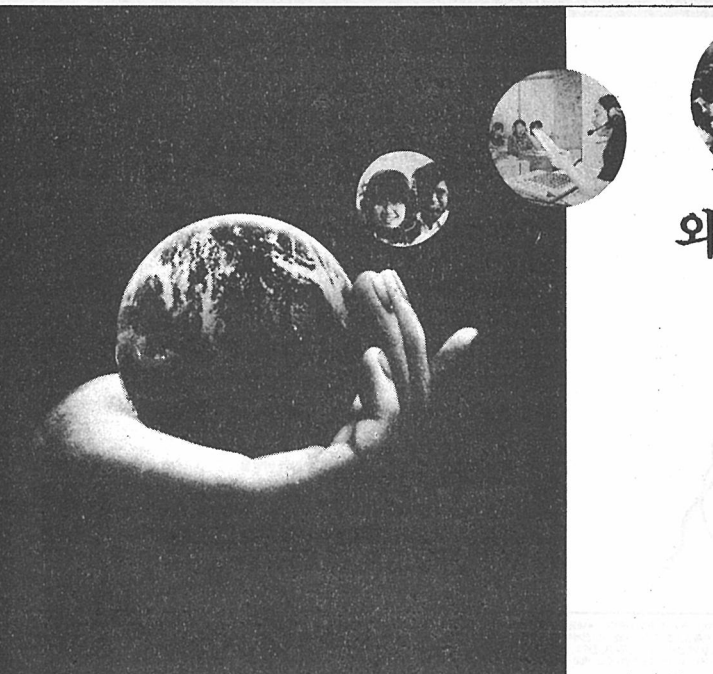
파고다 외국어학원

철도의 창— 입사, 승진, 전직, 유학, 해외지사 파견...
그러나 단 한가지, 외국어 실력 때문에 성공의 문턱에서 반쯤 좌절했다는 안타까움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외국어 교육은 이러한 학습자들의 절박한 상황을 교수들이 함께 인식하지 않는 한 만족한 결실을 맺을 수 없다는 것이 「파고다 외국어학원」의 교육 철학이기도 합니다.

“바쁜 시간을 쪼개서 학원을 찾는 수강생들에게 하루 하루 성취감을 주자”
「파고다 외국어학원」이 내걸고 있는 이러한 모토는 강의 시간 시간마다 진지하게 변형되고, 하루가 다르게 높아가는 외국어 실력으로 인한 재미와 학업의욕은 상승작용을 일으켜 학습효율을 배가시켜줍니다.

적극적인 사고, 정성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이 시대 最高의 外國語學院—「파고다」 외국어 교육, 최고의 자부심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 정상의 대열로 오십시오.

외국어 교육의 선구자
파고다외국어학원
서울 중로구 종로2가56의6호 274-4000, 274-6821 ~2



신년특집 가상으로 꾸며본

90년 10월 10일자 외대학보

통일추진 제1차 모의UN총회 개최

본교와 평양외대 공동주최로 「지구의 생태계 유지」의제로 열려

본교와 평양 외국어대학 공동 주최, 전대협 후원으로 「통일추진 제1차 모의UN총회」가 지난 10월 2일(화) 교수, 학생 등 방청객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다.

제코, 브라질, 영국 등 세계 28개국 대표가 참석 「지구의 생태계 유지」를 의제로 각국의 입장을 밝힌 이번 모의유엔총회는 처음으로 남북한 공동대표가 참석해 세계각국에 단일국가로의 한민족이미지를 심어주는 자리가 되었다.

사중 평화로운 분위기에 진행됐던 이번 모의유엔총회의 「평화통일상」은 생태계의 파괴가 군사강대국의 무분별한 군비증강에 있음을 밝힌 이집트대표 군속소(평화당) 노아문(박)과 3)이 차지했으며 파나마대표 오물일(평화당)과 프랑스대표 한동현(사상)이 2)이 각각 4주, 민주당을 수상하였다.

한편 같은날 평양의 5월 경기장에서 본교와 평양의대간의 「남북외대 친선체육대회」가 7천여명의 선수로 관람객이 참가하여



▲지난 10월2일(화)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남북외대공동주최 「통일추진 제1차 모의UN총회」의 시상식 모습.

가운데 열려 축구, 배구 등 8개 종목에 걸쳐 경기가 진행되었다.

농구 등 5개종목을 우승한 본교가 종합우승을 차지한 가운데 같은 이날 개최된 개사대사 대회상 본교 추진팀 중창은 기념품을 통해 「이탈트」 평양에서 본교와 평양의대간 친선체육대회를 갖게 된것은 정말 뜻깊은 일이며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이루어내는 초석이 될 것이다. 「앞으로 계속해서 학술·문화 교류를 할것을 제의한다」고 밝혔다.

이후 학생들은 모의유엔총회에 참가한 학생들과 평양의대 대운동장에서 모여 대동노자와 장기자랑 등 각 학교의 공연을 보며 한민족간의 정을 나누는 시간을 마련하고 구제적 통일방안에 대한 토론시간도 가졌다.

평양의대의 모의유엔총회 공동개최와 친선체육대회를 계기로 본교는 현재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남북교류의 확고한 디딤돌을 마련하였으며 이번 교류를 계기로 타대학도 점차 교류를 활성화 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행방사와 관련 대학교육을 추진위원회위원장 임성웅(전대협 정책실장)은 「그동안 지속적

한 교원의 의사소통 폭이 국민대중의 자주적전술과 권력균형을 막으려고 안간힘을 다했음이 우리의 기억에 있다. 하지만 전제적 평화에호민중의 적극적 지지선과 4천만국민의 하나된 지향운동은 결별위기에 몰렸던 아시안게임 남북단일팀구상합의를 기점으로 조정되던, 미국조국활동 등도 중추적

을 공안의 의사소통 폭이 국민대중의 자주적전술과 권력균형을 막으려고 안간힘을 다했음이 우리의 기억에 있다. 하지만 전제적 평화에호민중의 적극적 지지선과 4천만국민의 하나된 지향운동은 결별위기에 몰렸던 아시안게임 남북단일팀구상합의를 기점으로 조정되던, 미국조국활동 등도 중추적

한 교원의 의사소통 폭이 국민대중의 자주적전술과 권력균형을 막으려고 안간힘을 다했음이 우리의 기억에 있다. 하지만 전제적 평화에호민중의 적극적 지지선과 4천만국민의 하나된 지향운동은 결별위기에 몰렸던 아시안게임 남북단일팀구상합의를 기점으로 조정되던, 미국조국활동 등도 중추적

을 공안의 의사소통 폭이 국민대중의 자주적전술과 권력균형을 막으려고 안간힘을 다했음이 우리의 기억에 있다. 하지만 전제적 평화에호민중의 적극적 지지선과 4천만국민의 하나된 지향운동은 결별위기에 몰렸던 아시안게임 남북단일팀구상합의를 기점으로 조정되던, 미국조국활동 등도 중추적

으로 노력해온 교류추진에 성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로 북한 역시 우리조국의 한 축이며 북한 동포는 우리 대남 민족의 한 것임을 다시한번 느꼈다」고 밝혔다.

본교 모스크바외대와 학술문화등 자매결연

본교 총장은 지난 9월 28일(금) 소련의 모스크바를 방문한 중 모스크바 외국어대학에 들리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본교와 모스크바 외대간의 학술·문화교류를 추진할것을 합의하였다.

이로써 본교는 소련을 비롯 폴란드, 체코 등지의 대학과 자매결연을 맺음으로써 국제적인 사회주의국가 대외와 가장 많은 자매결연을 맺은 대학이 되었다.

이와관련 본교 유진익(사)과 진취적은 「유진익」이 더욱 넓은 나라들과도 자매결연을 맺을 날이 오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동유럽학과 동구어대로 동유럽진출 활성화 기대

독자적인 단대분리문제로 논쟁이 돼왔던 동유럽학과 5개학과(체코, 루마니아, 헝가리, 폴란드, 유고)가 다음년도부터 동구어대로라는 공식명칭으로 독자적인 단대운영을 하게된다.

그동안 계속해서 독자적인 단대설립을 추진해온 「동구어대」 단대설립 추진위원회(위원장: 독단대교(사)문·제코)는 「독자적인 단대설립을 결의하였으며 실적으로 동구어대가 발전하기위한 바탕이 되고, 「동구어대」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국가와의 학문·문화·경제 교류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체육대회와 예술제등의 행사를 서양어문대와는 별도로 치렀던 동구어대 5개학과는 단대설립을 비롯 독자적 활동체제가 완전히 갖추어지는데도 타대학과 단대대학자원의 교류추진 등 많은 사업을 벌일 계획으로

용인 실내체육관 착공

계단 자금사정 호전으로 학교 단기발전계획에 세로이 포함되었던 용인실내체육관 실내체육관이 93년2월 완공을 예정으로 지난 9월(화) 착공되었다.

새로이 건립되는 실내체육관은 현재 중랑구도서관 3층이상의 부지에 자리하게 되는데 2천평을 수용할 수 있는 과석과 농구, 배구, 핸드볼, 실내축구등의 경기와 실내로 축구경기 등 각종 체육행사에 활용될 수 있는 시설이다.

관공식에 참가했던 건설자의 한 직원은 「타학교에 비해 우리 학교의 실내체육관건립이 많이 늦어진 것은 사실이다.」

관공식 예정된 93년부터는 체육대학의 신설도 대학발전추진위원회에서 긍정적으로 고려해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밝혔다.

용인실내체육관 착공

계단 자금사정 호전으로 학교 단기발전계획에 세로이 포함되었던 용인실내체육관 실내체육관이 93년2월 완공을 예정으로 지난 9월(화) 착공되었다.

새로이 건립되는 실내체육관은 현재 중랑구도서관 3층이상의 부지에 자리하게 되는데 2천평을 수용할 수 있는 과석과 농구, 배구, 핸드볼, 실내축구등의 경기와 실내로 축구경기 등 각종 체육행사에 활용될 수 있는 시설이다.

관공식에 참가했던 건설자의 한 직원은 「타학교에 비해 우리 학교의 실내체육관건립이 많이 늦어진 것은 사실이다.」

관공식 예정된 93년부터는 체육대학의 신설도 대학발전추진위원회에서 긍정적으로 고려해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밝혔다.

임양 향소심서 무죄판결

방북행위 통일의지로 인정

작년 8월, 평양출신 참가자를 구속되어 징역 15년의 구형을 받았던 본교생 임수경(당시 10세, 본명: 임수경)이 지난 8월(월) 10일에 서울형사지법(판사: 공정환) 대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판결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임수경은 작년 8월 10일 평양에서 본교를 찾던 중 본교의 임수경(당시 10세, 본명: 임수경)이 지난 8월(월) 10일에 서울형사지법(판사: 공정환) 대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판결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제 자주적교류정책 2년제를 맞아 깨끗하게 청산해 버리자고 그제하고 「이제 남은것은 남과 북의 하나된 뿌리, 그리고 함께 할것들」로 부터 박수를 받기도 했다.

이후 임수경은 오는 15일(월)부터 두달동안 전국을 돌며 「내가 보고는 북한,이라는 주제에 강연을 가진 예정이다.

중대한 판사는 이번 판결이 우리 민족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전제적 평화에호민중의 적극적 지지선과 4천만국민의 하나된 지향운동은 결별위기에 몰렸던 아시안게임 남북단일팀구상합의를 기점으로 조정되던, 미국조국활동 등도 중추적

중대한 판사는 이번 판결이 우리 민족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전제적 평화에호민중의 적극적 지지선과 4천만국민의 하나된 지향운동은 결별위기에 몰렸던 아시안게임 남북단일팀구상합의를 기점으로 조정되던, 미국조국활동 등도 중추적

중대한 판사는 이번 판결이 우리 민족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전제적 평화에호민중의 적극적 지지선과 4천만국민의 하나된 지향운동은 결별위기에 몰렸던 아시안게임 남북단일팀구상합의를 기점으로 조정되던, 미국조국활동 등도 중추적

중대한 판사는 이번 판결이 우리 민족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전제적 평화에호민중의 적극적 지지선과 4천만국민의 하나된 지향운동은 결별위기에 몰렸던 아시안게임 남북단일팀구상합의를 기점으로 조정되던, 미국조국활동 등도 중추적

중대한 판사는 이번 판결이 우리 민족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전제적 평화에호민중의 적극적 지지선과 4천만국민의 하나된 지향운동은 결별위기에 몰렸던 아시안게임 남북단일팀구상합의를 기점으로 조정되던, 미국조국활동 등도 중추적

중대한 판사는 이번 판결이 우리 민족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전제적 평화에호민중의 적극적 지지선과 4천만국민의 하나된 지향운동은 결별위기에 몰렸던 아시안게임 남북단일팀구상합의를 기점으로 조정되던, 미국조국활동 등도 중추적

중대한 판사는 이번 판결이 우리 민족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전제적 평화에호민중의 적극적 지지선과 4천만국민의 하나된 지향운동은 결별위기에 몰렸던 아시안게임 남북단일팀구상합의를 기점으로 조정되던, 미국조국활동 등도 중추적

중대한 판사는 이번 판결이 우리 민족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전제적 평화에호민중의 적극적 지지선과 4천만국민의 하나된 지향운동은 결별위기에 몰렸던 아시안게임 남북단일팀구상합의를 기점으로 조정되던, 미국조국활동 등도 중추적

중대한 판사는 이번 판결이 우리 민족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전제적 평화에호민중의 적극적 지지선과 4천만국민의 하나된 지향운동은 결별위기에 몰렸던 아시안게임 남북단일팀구상합의를 기점으로 조정되던, 미국조국활동 등도 중추적

하수도

- ▲임수경의 항소심
- ▲삼천리의 다산정 통일꽃
- ▲평양의대의 공동, 모의유엔총회
- ▲의대 평양에서 열린...
- ▲6월경한국대학(본교)이 고조...
- ▲통일안의의 용서해주시다.



이번주 10월14일(일) 오후3시 여의도광장에서 열린 「6공정선과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범국민대회」를 통한 「공정선」을 기념하는 행사를 통해 「이탈트」 평양에서 본교와 평양의대간 친선체육대회를 갖게 된것은 정말 뜻깊은 일이며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가운데 열려 축구, 배구 등 8개 종목에 걸쳐 경기가 진행되었다.

농구 등 5개종목을 우승한 본교가 종합우승을 차지한 가운데 같은 이날 개최된 개사대사 대회상 본교 추진팀 중창은 기념품을 통해 「이탈트」 평양에서 본교와 평양의대간 친선체육대회를 갖게 된것은 정말 뜻깊은 일이며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이루어내는 초석이 될 것이다. 「앞으로 계속해서 학술·문화 교류를 할것을 제의한다」고 밝혔다.

이후 학생들은 모의유엔총회에 참가한 학생들과 평양의대 대운동장에서 모여 대동노자와 장기자랑 등 각 학교의 공연을 보며 한민족간의 정을 나누는 시간을 마련하고 구제적 통일방안에 대한 토론시간도 가졌다.

평양의대의 모의유엔총회 공동개최와 친선체육대회를 계기로 본교는 현재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남북교류의 확고한 디딤돌을 마련하였으며 이번 교류를 계기로 타대학도 점차 교류를 활성화 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행방사와 관련 대학교육을 추진위원회위원장 임성웅(전대협 정책실장)은 「그동안 지속적

이후 임수경은 오는 15일(월)부터 두달동안 전국을 돌며 「내가 보고는 북한,이라는 주제에 강연을 가진 예정이다.

이후 임수경은 오는 15일(월)부터 두달동안 전국을 돌며 「내가 보고는 북한,이라는 주제에 강연을 가진 예정이다.

이후 임수경은 오는 15일(월)부터 두달동안 전국을 돌며 「내가 보고는 북한,이라는 주제에 강연을 가진 예정이다.

이후 임수경은 오는 15일(월)부터 두달동안 전국을 돌며 「내가 보고는 북한,이라는 주제에 강연을 가진 예정이다.

겨울 금강산에 가봅시다

남북외대 교류원운을 맞이하여 본교에서는 평양의대박사와 공동으로 「남북외대 금강산산악 대항마라톤」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본교 46년 동안 그보다 크고도 심오한 내국 산하를 직접 돌아보고 한민족의 하나됨을 다시 확인하시라.

◇당일사 및 장소: 12월 1일(토)부터 12월 15일(토)까지 15일간 금강산 전역

◇대상: 통일을 염원하는 남한의 외국어대학생 누구나

◇모집기간: 12월 1일(토)부터 14일(수)까지

◇참가비: 숙식비 포함 5만5천원

◇신청장소 및 문의처: 외대북부학생기자실(학생회관 203호)

955-7048

친구 보게나!

80년대를 마감했던 기사나도 몇조각의 추억들을 남긴채 새로운 시간 속으로 사라졌다. 어느때 보다도 지난 한 해는 내게 큰 의미를 주고 있었다.

작년에도 대학신문발전회 뜻을 같이했던 사람들이 모여 대학신문발전회를 대대적으로 「나래기획」이라는 회사를 설립했다.

나도 처음에는 우리나라에 아직 매체대중의 위상이 미약하다는 생각에 이에 공히 보였었다는 의외로 고맙게 생각했다.

불운한 상황과 서로에 의존하면서 원형으로 강한 회사들과 경쟁해 나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구성원 모두가 헌신적으로 일을 했다.

처음에는 업무의 가늠이 아니로 그저 나타내는 의지와 열정을 약간씩 속에서 바라보는 사람도 많았었다. 전히 새로운 의지들을 감출때는 신념이 사라지는 바람에 그런 수도 있었다는 생각도 해보았다. 그리고는 좋은 것을 추구하겠다는 삶의 자세가 심히 애매한 수도 있다는 현실에서 우리는 성실과 정의로써 애정과 자정과 자기자신을 거듭함으로써 오히려 더욱 견고해질 수 있었다.

인문 석사학위 남한 상으로부터 「처음에 다른 이들도 좋았고 나도 좋았다. 그러다가 점차 변질되다. 나처럼 그런 것이 아니었나?」라는 애절한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다. 항상 그대서는 언제나: 신의를 재확인하면서 우리는 오늘도 정열을 불사르고 있다.

「나래기획」은 「대학신문의 발전을 꾀하고 광고대행의 전문화를 통하여 건전한 대학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한다」는 취지로 출범했다. 그대서는 언제나: 신의를 재확인하면서 우리는 오늘도 정열을 불사르고 있다.

「나래기획」은 「대학신문의 발전을 꾀하고 광고대행의 전문화를 통하여 건전한 대학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한다」는 취지로 출범했다. 그대서는 언제나: 신의를 재확인하면서 우리는 오늘도 정열을 불사르고 있다.

「나래기획」은 「대학신문의 발전을 꾀하고 광고대행의 전문화를 통하여 건전한 대학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한다」는 취지로 출범했다. 그대서는 언제나: 신의를 재확인하면서 우리는 오늘도 정열을 불사르고 있다.

「나래기획」은 「대학신문의 발전을 꾀하고 광고대행의 전문화를 통하여 건전한 대학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한다」는 취지로 출범했다. 그대서는 언제나: 신의를 재확인하면서 우리는 오늘도 정열을 불사르고 있다.

「나래기획」은 「대학신문의 발전을 꾀하고 광고대행의 전문화를 통하여 건전한 대학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한다」는 취지로 출범했다. 그대서는 언제나: 신의를 재확인하면서 우리는 오늘도 정열을 불사르고 있다.

「나래기획」은 「대학신문의 발전을 꾀하고 광고대행의 전문화를 통하여 건전한 대학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한다」는 취지로 출범했다. 그대서는 언제나: 신의를 재확인하면서 우리는 오늘도 정열을 불사르고 있다.

「나래기획」은 「대학신문의 발전을 꾀하고 광고대행의 전문화를 통하여 건전한 대학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한다」는 취지로 출범했다. 그대서는 언제나: 신의를 재확인하면서 우리는 오늘도 정열을 불사르고 있다.

「나래기획」은 「대학신문의 발전을 꾀하고 광고대행의 전문화를 통하여 건전한 대학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한다」는 취지로 출범했다. 그대서는 언제나: 신의를 재확인하면서 우리는 오늘도 정열을 불사르고 있다.

「나래기획」은 「대학신문의 발전을 꾀하고 광고대행의 전문화를 통하여 건전한 대학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한다」는 취지로 출범했다. 그대서는 언제나: 신의를 재확인하면서 우리는 오늘도 정열을 불사르고 있다.

「나래기획」은 「대학신문의 발전을 꾀하고 광고대행의 전문화를 통하여 건전한 대학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한다」는 취지로 출범했다. 그대서는 언제나: 신의를 재확인하면서 우리는 오늘도 정열을 불사르고 있다.

「나래기획」은 「대학신문의 발전을 꾀하고 광고대행의 전문화를 통하여 건전한 대학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한다」는 취지로 출범했다. 그대서는 언제나: 신의를 재확인하면서 우리는 오늘도 정열을 불사르고 있다.

「나래기획」은 「대학신문의 발전을 꾀하고 광고대행의 전문화를 통하여 건전한 대학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한다」는 취지로 출범했다. 그대서는 언제나: 신의를 재확인하면서 우리는 오늘도 정열을 불사르고 있다.

「나래기획」은 「대학신문의 발전을 꾀하고 광고대행의 전문화를 통하여 건전한 대학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한다」는 취지로 출범했다. 그대서는 언제나: 신의를 재확인하면서 우리는 오늘도 정열을 불사르고 있다.

「나래기획」은 「대학신문의 발전을 꾀하고 광고대행의 전문화를 통하여 건전한 대학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한다」는 취지로 출범했다. 그대서는 언제나: 신의를 재확인하면서 우리는 오늘도 정열을 불사르고 있다.

「나래기획」은 「대학신문의 발전을 꾀하고 광고대행의 전문화를 통하여 건전한 대학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한다」는 취지로 출범했다. 그대서는 언제나: 신의를 재확인하면서 우리는 오늘도 정열을 불사르고 있다.

본보선정 '89 외대 10대 뉴스



임수경 학우 평측참가

반제연대성·평화와 친선의 기치아래 7월1일부터 8일까지 평양에서 열렸던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전국 1백만 청년학생의 대표기구인 전대협의 대표로 본교생 임수경양(서문·불어4)이 단독 참가하였다.

당국의 기만적 통일정책을 들고 자주적 민간인 통일교류의 물꼬를 튼 임양은 지난 8월15일 환영식을 통해 귀환했으며, 귀환 즉시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 현재 성동구지소에 수감중이다.

임양의 방북은 40년간의 통일운동사에 중요한 한 획을 그은 채거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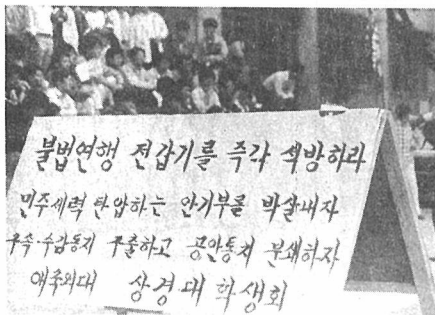


조기연 학우 실명

지난 4월19일에 있었던 「4·19혁명 계승 실천대회」에서 전경이 던진 돌에 왼쪽눈을 맞은 조기연군(서양·영어2)이 한쪽눈을 실명당하였다.

시위진압 과정에서 만성적으로 나타나는 경찰의 과잉진압이 결국 한청년의 눈을 빼앗아간 결과를 초래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경찰의 과잉진압은 온국민의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



공안정국의 학원탄압

지난 3월 문무사법복과 5월 동의대 사건들을 계기로 조성된 공안정국이후 전교조법복화·평안축전참가·임수경대표 사법처리반대 및 11월 총선거 유령선거와 관련 정계권(중앙·일어4) 유원원(사회·경제3) 양정희(중앙·불어4) 회장 등을 비롯 30명 이상의 학생이 구속되었다. 이러한 학원침탈과 학생구속을 현정권이 공안정국을 이용하여 학생회활동을 위축시켜 민족민주운동의 싹을 태워 없애려는 의도에서 자행된 것이다.



동구대학과 자매결연

국제화시대와 더불어 외대의 동구지역별은 무역, 정치 분야와의 관계개신 요구의 증대에 따라 관심을 더하고 있다.

이에따라 작년 6월18일에는 유고슬라비아의 벨그라드 대학교와, 27일에는 폴란드의 아질프니아 대학교와 교육교류협정을 맺게되었다. 동구지역의 해외연수의 기회와 학술 및 문화교류를 통한 상호인식의 폭을 넓히는 한편 본교 부설 소년 및 동구문제연구소 주최로 폴란드 교수를 초청하는 등 그 깊이도 더하고 있다.



모의유엔총회 부활

지난 10월24일(화)에는 개교35주년기념행사로서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주최의 「제13차모의유엔총회」가 동승아트센터대강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1960년에 처음 시작되어 본교의 상징적인 행사로 성장해 오다가 지난 82년 중단된 이후, 7년만에 부활한 이 행사는 최근 세계적 관심사인 「반전·반핵·평화」문제를 가지고 진행되었으며 유적비자각의 남북한대표도 참가하여 이에대한 한반도 문제가 집중토론 되었다.



고시반 이전 동성

9월에 있었던 서울캠퍼스 고시실과 업무는 같은 달 19일(화) 4개고시반이 자전태산하고 침묵농성에 돌입한 이후 법과대학학원의 교내시위로 크게 확산되는 등 난항만을 거듭하다가 마침내 학교측의 고시실이전에 대한 긍정적인 대답으로 일단락 지어졌다.

하지만, 이러한 고시실문제와 같은 고질적으로 남아있는 학내부지문제들은 90년도의 전면적인 학원자주화사업 전개와 함께 더욱 활발히 진행되어 그간 해결되지 못한 「도서관지하 휴게실화」, 「구관정리」 등에 관한 논의까지 쏟아져 나오리라 본다.



전교조 결성, 지지투쟁

89년 5월28일 민족·민주·인권화교육 실천을 목표로 전국교직원노조가 결성되었다.

공안정국이 편승하여 민족운동과 통일운동을 탄압하는 현정권에 맞서 전교조는 선봉에서 싸웠으며 그러한 가운데 1천5백여 교사가 교단에서 쫓겨났고, 수십여명이 구속·수배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교사들의 투쟁이 아니라 이땅의 자주·민주·통일을 열망하는 애국력이 강렬한 대의를 형성하여 반민중적·반교육개혁과 의연히 싸워나가야 할 것이다.



직원 노조 파업

지난 3월14일(월)본교 직원노동조합은 「직원인사위원회구성」 「단일호봉제」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

협상중 노조측이 제시한 「인사규정 제정」 「유니온살 등」 학교측과의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되었으며, 학생대표인 서울·동원대학생회에서 정부의 교육재정확보에 대한 공동투쟁을 결의했다.

4월29일(수)에야 최종합의된 「노사 단체협약서」에는 「단일호봉제」 「인사위원회」등 9개 조항에 새로운 타결을 보며 마무리되었다.



명동 구국단식투쟁

지난달 5월26일(금)부터 명동성당에서는 「이월균군 사인전상규명」, 「전두환 구속치법」, 「정호용·박준범 공직사퇴와 구속치법」, 「광주항쟁관련 미국공식사과」 등을 요구하며 전국 72개 대학 학생 6백여명이 「무기한단식농성」을 약 보름동안 벌였다.

이에 본교에서도 6월4일과 5일 단대표자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기말고사를 거부키로 결의하고 단식농성에 합류하였다.

단식농성자들은 거의 탈진상태에 빠졌으며 30여명이 탈수, 호흡곤란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



이문동 재배치 공사

서울캠퍼스 재배치공사 환경식이 지난 9월4일(월)에 있었다.

지난 1월에 기공식을 가진지 8개월 동안 진행된 이번 공사결과도 학교는 이전에 비해 훨씬 깔끔한 모습으로 단장되었으나 또다시 학생들로부터 단원극장, 도로포장, 배수도랑사들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편 지난 9월26일(목)에 기공된 용인캠퍼스 도서관은 92년 7월에 완공되어 이후 용인캠퍼스의 상징적이며 중심적인 건물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